

가금질병방제연구센터 출범식



▲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출범식을 축하하며 관련 인사들의 힘찬 파이팅!



▲ 장형관 센터장(전북대학교 수의학과 교수)

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(센터장 장형관)가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캠퍼스에서 전북대학교 이남호 총장, 전북도청 이지영 부시장, 본회 이홍재 부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.

본 센터는 지난 201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AI 및 가금산업을 위협하는 질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'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(ARC)' 지원사업으로 기획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초까지 사업검토를 거쳐 지난 2월에



▲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현판식이 전북대학교 특성화캠퍼스 제1수위학관에서 있었다.



▶ 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 내부모습

‘가금류질병방제연구센터’가 최종 선정되었다. 본 센터는 향후 7년간 약 154억원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.

본 센터는 전북대학교를 필두로 전국 5개 대학이 책임급으로 참여하게 되며,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협력하여 지역 산업체인 하림 및 참프레를 비롯하여 모란식품 등 9개의 산업체가 참여하게 된다.

장형관 센터장은 ‘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, 현장밀착형 질병방제기술 개발, 수출주도형 동물 의약품 개발, 가금육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, 글로벌 가금질병 전문가 육성이라는 4가지 미션

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’고 포부를 밝혔다.

센터가 위치한 전북대학교 익산 특성화캠퍼스는 1947년 이리농과대학이 있던 자리로 그 동안 농업생명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 왔으며, 지난해 수의과대학이 전주캠퍼스에서 옮겨오면서 동 센터의 역할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있다.

전북지역은 닭고기 산업의 최대 생산지이며 하림, 참프레 등 1~2위 계열업체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금산업의 중심지로 투자기술과 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방역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. **양계**